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17년 12월 15일

제 28 호

• 발행인 : 임국희 • 편집장 : 황인우
• 주소 : 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5층 3호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 ☎ 010-4278-0450, 070-7501-3842

클럽 회원들 재능기부로 사회 공헌 앞장섰다

11월, 방송 90주년 기념 덕수궁 돌담길 라디오 축제
9월 서리풀 축제 멀티캠 소셜라이브 중계 등에 MC와 게스트, DJ로 참여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강좌
시각장애인 영상해설사 양성 교육, 바른말 캠페인 등 다방면에서 재능기부

방송 90주년 기념 덕수궁 돌담길 라디오 축제



이숙영 황인우 김성경 정지원

방송 90주년을 맞아 11월 8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린 라디오 축제에 SBS 러브FM DJ인 이숙영(전 KBS) 회원 등이 MC와 게스트, DJ로 참여해 성가를 높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센터장 장영희)와 관악FM(100.3MHz, 대표 안병천), 마포FM(100.7MHz, 대표 강덕호) 공동 주관 '돌담길 라디오 2017'은 덕수궁 돌담길 현장에 생방송 시스템을 갖추

고 국민의 방송 참여 기회 확대와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행사다.

11월 8일 오후 5시 개막 토크쇼 '라디오가 좋다'는 정지원(KBS) 아나운서가 MC를 맡아 김상근(전 KBS)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권한대행, tbs 정찬형 대표, CBS 김현정 PD 등과 함께 라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후 7시~8시 셀럽 존 '라디오 워드 스타'는 8일 정지원, 9일 이숙영, 10일 황인우(전 KBS), 12일 김성경(전 SBS) 회원 진행으로 두 공동체 라디오, 페북라이브와 팟빵에 생중계되었다.

송/년/사

바를 아나운서의 기를 뿜어냅시다

바하의 평균율처럼 한 줄기 흐름을 타고 살아가는 것도 아름답지 않은가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임국희(전 MBC) 회장

작년 이맘때도 그렇게 느꼈지만, 지구 전체가 대전환의 시기에 들어선 듯 힘든 날이 계속되고 있다.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없고, 희망이 안 보인다는 불안감과 반대로 '희망이 있는 어려움'이란 말이 들린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한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의지가 되고 위안이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우리 아나운서 직종에 '선배 존경, 후배 사랑'의 전통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 선후배에 대한 전통이 일관되게 살아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다.

원기, 정기란 말처럼 아나운서의 기란 것도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살며 개혁도 해야겠지만, 우린 우리대로 아나운서의 길을 걸으며 밝고 반듯하고 아름다운 말로써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맡은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면, 세상에 바른 아나운서의 기를 뿜어낼 수 있지 않을까. 듣다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바하의 평균율처럼 한 줄기 흐름을 타고 살아가는 것도 아름답지 않은가!

전영우 고문 한글날 유공자로 문화 포장 받아

화법 관련 논문과 저서 60여 편 집필



전영우(전 KBS) 고문이 10월 9일, 571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평생 '화법의 실제와 학문 탐구'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글 발전 유공자'로서 문화 포장을

받았다. 1934년생인 전 고문은 1954년 KBS 입사 후 1983년 학계로 진출해 수원대학교 인문대학장을 지낸 국어학자로서 1982년 KBS한국어연구회와 1998년 한국화법학회를 창립했으며 26편의 논문과 37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서리풀축제 중계한 50+코리안에 재능기부



중견 방송인들의 재능기부로 올해 서초구 서리풀페스티벌이 한층 빛이 났다.

한국아나운서클럽과 50km협동조합(이사장 한정주)이 힘을 모아 중장년층을 위한 추억의 가요 콘서트와 젊음이 넘치는 비보이 페스티벌 행사 상황을 50+TV를 통해 멀티캠 소셜라이브로 중계했다.

방남순(전 MBC), 황인우(전 KBS) 회원이 9월 16일부터 24일까지 서초구 주최로 열린 서리풀페스티벌 중 18일 오후 7시 30분부터 양재천 연인의 거리 수변무대에서 열린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콘서트에 이어 22일 오후 4시부터 방배본동 뒷벌어린이 공원에서 열린 '방배 뒷벌 비보이 페스티벌'(사진) 상황을 공동 진행해 아나운서클럽의 전문성을 과시했고, 50+코리안이 배출한 50km협동조합원과 스마트영상작가, 영상팩가이버, 소셜문화PD들이 제작진으로 참여했다.

1973년 입사, 1974년 혼인하며 퇴사 후 1980년 교직으로 진출, 2013년에 진명여고 교감으로 정년퇴임 후 현재 고양외국어고등학교 감사인 서초구민인 방남순(사진 왼쪽) 회원은 "오랜 만에 마이크 앞에 앉은 데다 신 개념의 실황 중계라 부담스러웠지만, 금세 편안하고 즐겁게 방송에 임할 수 있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아나운서클럽은 그 동안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강좌(동작다문화센터)를 비롯해 결혼 이민자를 위한 태교 동화집(서울시)과 셀코한국어교육연구소와 함께한 다문화 초등학교용 한국어교재(국립국어원) 녹음 봉사, 올바르게 말하기 교실(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찾아가는 직업 체험(마포청소년문화의집), 바른말 캠페인, 영광시각장애인도서관과 함께한 영상해설사 양성 교육(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지부)과 베리어프리문화누리사업(한국문화예술위원회), KBS미디어와 함께한 오지 초등학교를 위한 온드림창의교실(현대차정몽주재단), 50+코리안과 함께한 50+TV 개국방송 '시니어리빙복지박람회 센텍스2016' 소셜라이브 중계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해왔다.

2017아나운서대상 CBS 박명규 등 21명 수상



2017아나운서대상 영예의 수상자 - 왼쪽 여섯 번째 박명규 아나운서

한국아나운서연합회(회장 SBS 염용석) 주최 2017아나운서대상 시상식이 12월 15일 저녁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수상자는 대상 박명규(CBS), TV 진행상 시사 부문 한상현(KBS), 김초롱(MBC), 교양 부문 강승화(KBS), 최지혜(OBS), 예능 부문 조정식(SBS), 이현주(KBS), 라디오 진행상 교양 부문 이용철(창원febc), 김윤희(청주KBS), 음악 부문 원서호(tbs),

이정민(cpbc), 시사(신설) 부문 유상원(포항CBS), 앵커상 이해수(청주KBS), 최혜림(SBS), 스포츠캐스터상 이광용(KBS), 장기범상 신동진·손정은(MBC), 아나운서클럽상 배창복·이상협(KBS), 박은경(SBS), 공로상 변창립(MBC) 등 21명이다.

그리고 황우겸(전 KBS) 고문 특별 공로상, 고故 박태남(전 KBS, 1986~2017 재직) 전 KBS 아나운서팀장에게 특별상이 수여되었다.

2, 3면에 계속

다음 모임은 3월 6일(화) 오후 6시 30분 열빈 정기 총회

2017 대한민국 아나운서 대상 시상식



아나운서클럽 임국희 회장



아나운서연합회 염용석 회장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특별 공로상을 축하하며



1부 사회자 박창현 주시은 아나운서



연합회장에게 격려금 전달



후배들 격려차 참석한 아나운서클럽 임원진



장기범상을 시상하는 이계진 부회장



아메리카 갓 탤런트 준우승 팀 저스틴절크의 댄스

가수 하림의 피아노 연주와 노래에 이어 박창현(MBC)·주시은(SBS)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1부 첫 순서로 무대에 오른 **임국희 회장**은 “보고 싶은 얼굴, 예쁜 얼굴.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사랑합니다!”라는 최단 시간의 인상적인 축사 후 염용석 회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염용석 회장은 “아나운서들의 송년회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 아나운서클럽 김규홍(전 KBS) 부회장님 등 도와주시는 분들 계셔서 즐겁게 일했다. 얼마 전 파업을 끝낸 MBC 김범도 협회장의 복귀 소감 들어보자.”라며 마이크를 넘겼다.

김범도 협회장은 “선후배님들이 뜨겁게 성원해주셔서 승리했다. 믿을 수 없는 동화 같은 현실이다. 이 아름다운 기회 잘 활용해서 여러분께 보답해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먼저 **황우겸 고문**에게 특별 공로상이 수여되었다. 황 고문은 1991년 한국아나운서클럽을 창립해 후배 사랑과 격려에 앞장서온 국내 최고령 아나운서다. 지난 8월 그간의 시상과 어록을 정리해 <늦게 철들어 이 뭣고?>란 저서를 발간했고, 구순을 앞둔 지금도 JC와 방우회 등 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15일 후면 90세인 나에게 상을 준다고 해 ‘그럴 필요 없다’고 마다했지만, 속으로는 좋으면서 싫은 척 하러 나왔다. 분당 울동공원을 산책하는데, 누군가 ‘황 아나 아니냐? 야구 중계를 들어 잘 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한 번 아나운서는 영원한 아나운서’라고 하는 것이다. 현역이든 퇴역이든 품위를 유지하고, 아나운서 조직이 선배 존경, 후배 사랑의 질서가 오래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1984년 입사, 72일간의 MBC 총파업 후 5년 만에 <시선집중>으로 복귀했던 **변창립 신임 부사장**은 공로상을 받고, “2017 사번, 경영 직군이니 여기서 내가 가장 후배이다. 여기 계신 아나운서 선배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순간 장내가 어두워지며,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아나운서실을 떠나는 순간까지 제1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진행하다 지난 2월 22일 작고한 **박태남 아나운서**의 방송 영상이 나와 장내를 숙연하게 했다. 특별상을 받으러 무대에 오른 **고인의 장녀 원진 양**은 “저희 아버지가 병상에서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며 울먹였다.

대상 수상자 **박명규 아나운서**는 15년째 <CBS낮종합뉴스>를 진행하며 Joy4U 채널 <내영혼의 노래>

를 제작·진행하고 있다. “오늘이 CBS 창사 기념일이라 30년 근속상에 모범상 그리고 아나운서 대상까지, 상을 세 개나 받은 날이다. 상을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다. 오늘 참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부문별 시상식에서 라디오 진행상 교양 부문 수상자 **이용철 창원극동방송 방송부장**은 “우열을 가린다면 받지 못할 상이지만 사랑과 배려가 담겨있기에 받는 것 같다. 상 받은 것, 아나운서란 이름으로 만나게 된 것, 방송을 하며 많은 사랑과 사랑을 나누는 것, 은혜롭다.”라고 말했다. 1994년 입사 후 탁월한 진행 능력과 온화한 성품으로 청주 대표 아나운서로 활약 중인 **김윤혜 아나운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해 이해수 아나운서가 대리 수상했다.

<원서호의 노래하는 FM(새벽 3시~5시)>의 ‘DJ 윌’, 음악 부문 수상자 **원서호 아나운서**는 “라디오를 10년 넘게 하고 있으니 진정 행운이다. 게다가 유망주 10년차다. 여자 후배들만 있는데, 에이스가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민 아나운서**는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꽃자리인지 실감한다. ‘헛D’를 아시는지? 청취자들의 피로를 풀어준다고 붙여준 별명 ‘헛개수DJ’의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오후 6시~7시)> 많이 들어달라.”라고 말했다.

올해 신설한 시사상 수상자 **유상원 아나운서**는 2013년부터 <유상원의 톡톡 동해안>을 맡아 발로 뛰는 취재와 보도로 호평을 받았고, 2002년부터 대안학교 ‘청소년자유학교’에서 봉사하며 아나운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포항에 지진이 일어난 지 1달,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달라. 이제야 자유학교 학생들이 교감인 내가 아나운서임을 알아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제1라디오 <스포츠 스포츠>와 2TV <스포츠 하이 라이트>를 진행 중인 **이광용 아나운서**는 스포츠캐스터상을 받고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방송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끄럽다. ‘10년간 열심히 해오지 않았는가?’란 의미로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저스트절크의 브레이크댄스 공연 후 이강민(CBS) 구은영(MBC) 아나운서가 진행한 2부는 방송계의 사표였던 장기범 선생을 기리며 이계진 부회장이 1억을 회사해 제정한 장기범상 시상으로 시작되었다. 수상자 **신동진 아나운서**는 “너무 좋아 몸둘 바를 모르겠다. MBC 르네상스를 위해 노력하겠다. 아직도 파업 중인 KBS 새 노조에게 동료애로써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성금을 기탁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데스크> 앵커로 복귀한 **손정은 아나운서**는 “MBC가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신념을

지켜낸 아나운서 선후배가 있었기 때문이다. KBS 힘내라.”라며 성원을 보냈다.

TV진행상 시사 부문 **한상헌 아나운서**는 “<추적 60분>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방송이다. 열정이 넘치는 멋진 제작진 덕분에 상을 받아 감사하다. 말한 대로 실천하는 아나운서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매거진>과 <TV속의 TV>를 진행하는 **김초롱 아나운서**는 “지난 5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며, ‘지금이라도 그만두어야 할까?’ 고민했다. 전체 후배들을 대표해 선배님들의 마음을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 부당 전보된 선배님들이 정식으로 복귀한 날 상을 받아 기쁘다.”라고 말했다.

교양 부문 **최지혜 아나운서**는 <주말뉴스>와 <경기도 정책을 말한다>, <연예 매거진>을 맡고 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이 자리에 모셨다. 최근 OBS 아나운서실 인원이 절반가량 줄었는데, 협회장 김준우 선배가 해직됐다가 오늘 복귀했다. 나의 길이 그런 선배들과 함께 용기와 의리로 가득 찰 수 있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가식당>, <우리들의 공교시>, <온드림 스쿨>, <비바 K리그> 등을 진행하는 **강승화 아나운서**는 “앞으로 깊게 고민하라고 주는 상이라 생각해 저의 다짐을 말씀드리겠다. ‘아이히만으로 드러난 악의 평범성’을 생각해본다. 아나운서는 시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방송계의 아이히만이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예능 부문 **조정식 아나운서**는 “코모도에서 <정글의 법칙> 1주일 촬영하고 상 받으니 최고의 효율성이다. KBS와 MBC의 신진들이 방송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 제가 받는 상이라, 내년엔 많은 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 9>, <글로벌 성공시대>를 진행했고, <열린음악회> MC로 활약 중인 **이현주 아나운서**는 “예능과 거리가 있는데 <열린 음악회> 덕분에 이 상을 받는다. 박태남 아나운서 팀장님,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앵커상의 <9시 뉴스 충북> **이해수 아나운서**는 “라디오 다큐멘터리를 연출해 2013년 방송대상 작품상 받을 때 주위에서 ‘아나운서상 먼저 받아야지, 연출상부터 받냐?’고 하셨다. 내게 아나운서의 면을 찾아준 상이다. 동료인 아내와 부모님과 함께 이 상을 받겠다.”라고 말했고, <모닝와이드> 뉴스와 주말 <SBS 8시 뉴스>를 거쳐 2016년부터 <SBS 8시 뉴스>를 맡고 있는 **최혜림 아나운서**는 생방송 중이던 조정식 아나운서가 대신 수상했다.

2017 한국아나운서대상 수상자



TV - 교양 강승화(KBS), 최지혜(OBS)



특별 공로상 황우겸(전 KBS) 고문

“15일 후면 90세인 나에게 상을 준다고 해 마다했지만, 속으로는 좋으면서 싫은 척 하러 나왔다. 현역이든 퇴역이든 품위를 유지하고, 선배 존경, 후배 사랑의 질서가 오래 지속되길 바란다.”



라디오 - 교양 이용철(창원fbc), 김윤혜(청주KBS)



라디오 - 시사 유상원(포항CBS)



TV - 시사 한상현(KBS), 김초롱(MBC)



장기범상 신동진(오른쪽) · 손정은(MBC)



라디오 - 음악 원서호(tbs), 이정민(cpbc)



TV - 예능 조정식(SBS), 이현주(KBS)



스포츠캐스터상 이광웅(KBS)



앵커상 이해수(청주KBS), 최혜림(SBS)



공로상 변창립(전 MBC)



특별상 고 박태남(전 KBS)

대상 박명규(CBS)

30년이 지난 지금도 뉴스를 할 때는 매번 긴장합니다



선정해주신 회장단과 CBS 후배들, 그리고 늘 응원의 말을 해주는 아내, 가톨릭평화방송 지승신 경영관리국장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박명규 아나운서는 상을 받는 자리에서 개인 뉴스 모니터 일지를 꺼내, 첫 뉴스 진행 후 적었던 ‘1987년 6월 9일(화) 12시 30분 5분 뉴스 : 불안감으로 힘이 없고 자신 없는 뉴스였다.’란 내용을 소개해 감탄을 불러 일으켰다.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입사, 2003년에 아나운서부장을 지내며 프로 농구, 배구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 중계방송과 뉴스 진행 및 교육에 발군의 역량을 발휘해 CBS 방송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02년 4월 봄 개편부터 지금까지 15년째 <CBS낮종합뉴스>를 진행하며 뉴스캐스터의 전형典型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박명규 아나운서는 그와 같은 찬사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뉴스를 할 때는 매번 긴장감으로 불안하고, 없는 자신감을 애써 북돋워가며 뉴스를 하고 있다. 그 시간들에 대한 보상으로 큰 상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간도 ‘ON AIR’ 불빛 아래에서 긴장하며 뉴스를 전하고 있을 전국의 아나운서들과 이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는 겸양의 말로 수상 소감을 끝맺었다.

아나운서클럽상 배창복(KBS)

‘자네 아나운서 해도 되겠는 걸!’ 한마디가 운명을 바꿨다



“평상시대로 진지하게 읽었을 뿐인데 상까지 타게 돼 어색할 따름입니다. 낭독의 매력을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었다는 점은 정말 뿌듯합니다. 밤새 원고 쓰고 선곡하느라 고생한 이상협 아나운서, 사랑합니다!” 고3 때 국어 선생님의 “자네, 아나운서를 해도 되겠는 걸!”이란 말 한마디에 ‘아나운서가 되어야겠다.’ 결심했고, 아나운서의 내레이션이라는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서울시립대 국문과 재학 중 근현대사 교양 수업시간에 들었던 <영상실록> 다큐멘터리 때문이었다며 표영준 선배님이 내레이션 하신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는 배창복 아나운서.

2000년 2월 입사해 <KBS음악실>, <정다운 가곡>, <KBS 뉴스>, <영상실록, 한국전쟁>, <현장프로 동행> 등을 진행했고,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바른방송언어상’에 이어 얼마 전 2017년 한국어문기자협회 ‘한국어문상’ 특별상을 받았다. “주어지는 프로그램을 충실히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순간순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팟캐스트 <오디오 진정제>로 과분한 관심을 받은 올헤처럼 또 행복한 순간이 불쑥 찾아오지 않을까요?”

▶ 팟캐스트 <오디오 진정제>를 공동 진행해 아나운서클럽상을 수상한 배창복 아나운서는 “올 한 해 행운이 많이 따랐다. 아까 MBC에서 장기범상 상금을 KBS에 기탁하셨는데, 고음질로 그 상패 읽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상협 아나운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박은경 아나운서는 “그동안 후보로 올라 국물만 먹었는데, 이렇게 큰 상 받으려고 아껴놓으셨나 보다. 지각 한번 없이 묵묵히 일한 제 성실함을 조금이나마 인정해주신 듯해 정말 기쁘다.”라고 말했다. 2017한국아나운서대상 시상식은 김덕기(CBS) 아나운서가 황우겸 고문이 증정한 100만 원 상당의 고급 방향제 등을 비롯해 각 협찬사에서 제공한 경품을 추첨하며 흥겨운 분위기 속에 막을 내렸다.

아나운서클럽상 이상협(KBS)

아나운서 생활의 변곡점으로 삼겠습니다



“큰 상을 주신 아나운서클럽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빛나는 별 같은 선배님들이 주신 상이라 생각하니 더욱 기쁩니다. 입사 후에 큰 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생활의 변곡점으로 삼겠습니다.” 고려대 사범대 미술교육과 입학 후 교육방송국(KUBS) 생활을 하며 아나운서의 꿈을 갖게 되었고 ‘매사 샅뽀이 없이 정의로운 김태규 선배’를 좋아한다는데, 우리에게 ‘이규향 아나운서 아들’로 유명한 만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2002년 1월 1일 입사 후 <음악풍경> DJ, <추적 60분> MC, 대기희 <석굴암> 프리젠티어, <명견만리> 내레이터로 활약한 이상협 아나운서는 앞으로 다양한 팟캐스트를 제작·진행하고 싶다고 한다. 여행, 산책을 좋아하고 시, 작곡, 기타 연주가 취미를 넘어 특기라 할 수 있음은 1998년 제9회 유재하음악경연대회 동상과 2012년 「현대문학」 시 부문 신인상 수상으로 입증되었다. 2010년 ‘에고 트립(Ego Trip)’이란 이름으로 2010년 「봄, 밤과 2013년」고 트립(Go Trip)이란 앨범을 냈고, 내년 봄 첫 시집 발간을 앞둔 그의 앞날이 기대된다.

아나운서클럽상 박은경(SBS)

참 받고 싶었던 상이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 받고 싶었던 상이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새 빛나는 것은 후배들에게 양보하고 눈에 띄진 않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을 맡는 선배의 위치에 와 있네요. 앞으로도 어느 자리에서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경 아나운서는 2000년 10월 입사해 최초의 여성 주중 스포츠뉴스 메인 앵커, 올림픽 등 국제대회 MC로, <모닝 와이드>, <좋은 아침>, <접속 무비월드>, <스윗 뮤직박스> 등을 진행했고, 2006년 SBS 올해의 아나운서상, 2012년 SBS 연예대상 아나운서상을 받았다.

경남 밀양의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선도 보았다는데, 방송국 기자를 꿈꾸던 오빠(동아일보 박형준 기자)가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왜 그냥 시집갈 생각만 하나?” 하며 답답해했다고 한다. 그 영향을 받아선지 서울대 의류학과 졸업반 때 학과 방에 붙어 있던 아나운서 모집 광고를 보고 ‘한번 도전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는 박은경 아나운서는 같은 회사 이명우 드라마 PD의 아내, 초등생 딸의 엄마로 가정 생활에도 모범을 보이고 있다. 본보기와 포부를 묻자 “집안의 반대 속에서 너무나 준비가 안 된 채 SBS아카데미를 찾았을 때 발음, 아나운서 등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아나운서로서 가져야 하는 의무감, 성실함 등을 일깨워주신 황인우 교수님입니다. 힘들 때마다 ‘이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선배, 후배 모두에게 매순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보도부터 드라마까지? 어떤 것이든 마이크 앞에 있는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한 천상 방송쟁이입니다.”라고 답했다.

중계탑

지진, 그리고 세 가지 춤

글 / 유상원(포항CBS, <유상원의 톡톡 동해안> MC)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평소처럼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가을의 끝자락을 만끽하고 있던 그 시간,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우리나라 계기 관측 사상 두 번째 강도인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년 전 발생했던 경주 지진의 기억이 채 가지지 않은데다, 진원이 지표와 가까웠고 진앙이 거주지와 가까웠던 탓에 포항 지역 사회는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재산 피해액은 1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재민이 아직도 수백 명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들어갈 복구 비용과 지진 트라우마의 치유, 지역 경제 손실까지 지진이 끼친 피해는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깊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인명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천만다행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듯 지진과 태풍, 홍수 같은 재난과 자동차 사고, 비행기 추락, 선박 침몰 같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오는, 예견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에서도 경험했듯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도 자원봉사 같은 따뜻한 섬김과 후원의 손길, 관심과 염려 덕분에 희망과 위로를 품고, 아물어가는 상처를 바라보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평일 오후 5시대 라디오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진을 경험했던 시간을 돌아보면서, 생동맞게도 세 가지 '춤'을 생각해봤습니다. 바로 '멈춤'과 '낮춤', 그리고 '맞춤'의 세 가지 '춤'입니다. 생사가 갈릴 수도 있었던 그 순간을 통해,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던 자신에 대한 '멈춤'과 거대한 자연,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섭리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낮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을 향한 눈높이의 '맞춤' 말입니다.

포항은 여전히 지진이라는 터널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진의 후유증이라는 '액상화 현상'과 '땅 밀림', 그리고 지열 발전소의 지진 유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사회가 혼란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혼돈의 시간을 통해 해결책과 대안을 찾고 대응 지침이 만들어지면, 기나긴 터널의 끝도 곧 보이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지진이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게다가 지진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또다시 닥치게 될 고난 앞에서 저는 '멈춤'과 '낮춤', '맞춤'의 세 가지 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습니다.

한국어문상 수상자

한국어문기자협회 주최

- 방송 부문 김소원(SBS)
- 말글사랑 황선숙(MBC) • 특별상 배창복(KBS)



김소원



황선숙



배창복

한국어문기자협회(회장 동아일보 이승훈) 주최 제29회 한국어문상 시상식이 장웅(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12월 6일 오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대상 손진호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전문기자를 비롯해 신문 부문 권인섭 중앙일보 어문연구소 부장, 방송 부문 김소원(SBS) 아나운서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그리고 말글사랑 부문 황선숙(MBC) TV심의부 부장(현 아나운서국 부국장), 학술 부문 이현주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김병길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특별상 배창복(KBS) 아나운서, 공로 부문 이재교 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장, 류지철 문화일보 교열팀 기자가 한국어문기자협회장상을 받았다.



방 | 송 | 가 | 소 | 식



국립한글박물관서 한국어 포스터 전시회 개최



한국어 포스터 발간 20주년을 맞아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내 국립한글박물관(관장 김재원)에서 '2017 한국어 포스터 전시회'를 개최했다.

매달 포스터를 제작해 공공기관과 전국의 학교에 배포하는 KBS 아나운서실은 지난 6일에 서울 시민청에서 특별 전시회를 열었다.



장예원 <2017 슈퍼모델 선발대회> MC로 활약



장예원 아나운서가 개그맨 신동엽과 함께 제25회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 사회를 보았다. 장 아나운서는 12월 15일 제주 제주신화월드 랜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SBS Plus에서 생중계한 이번 행사에서 '아시아 최고의 모델 콘테스트'란 명성에 걸맞은 진행 솜씨를 보여주었다.



이상희 부장 방송대상 시상식서 아나운서상 수상



지난 9월 제44회 한국방송대상 개인상 수상자로 지명된 이상희 아나운서가 11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박재홍(CBS) 아나운서 사회로 열린 시상식에서 아나운서상을 수상했다.

10여 년간 OBS 옴브즈맨 프로그램 <미디어 공감 좋은 TV>를 진행해온 이상희 아나운서는 "방송을 하면 할수록 언제쯤이면 만족스러운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아쉬움이 앞선다. 제작진과 출연자들, 늘 곁에서 지지해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신임 최승호 사장 조직 개편 단행, 변창립 아나운서 부사장 선임 국장 강재형, 부국장 황선숙, 아나운서1부장 김범도, 2부장 김상호, 3부장 신동진



최승호

변창립

강재형

황선숙

김범도

김상호

신동진

MBC가 12월 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김장겸 사장 후임으로 최승호 전 <뉴스타파> PD를 대표이사로 선임,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변창립 아나운서가 부사장으로 선임된 것을 비롯해 아나운서국장 강재형, 부국장 황선숙, 아나운서1부장 김범도, 2부장 김상호, 3부장에 신동진 아나운서가 임명되었다. 아나운서 출신 김현경 기자는 보도본부 통일방송추진단장(부장)으로 발령받았다.

이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1월 13일 김장겸 전 사장의 해임됨에 따라 지난 9월 4일부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벌였던 72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고 11월 15일 오전 9시 방송 현장에 복귀했다.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의 170일 파업에 참여

한 후 사측으로부터 부당 전보를 당하거나 방송출연 기회를 박탈당해온 11명의 아나운서 중 휴직 중인 오승훈 아나운서를 제외하고 변창립, 강재형, 황선숙, 최우미, 김상호, 신동진, 박경추, 차미연, 손정은 아나운서 등 9명도 11월 16일 아나운서국으로 복귀했다. 김범도 아나운서는 이에 앞서 부당 전보 무효 소송 1, 2심에서 승리해 먼저 아나운서국에 복귀한 바 있다.

한편 12월 12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M라운지에서 1997년 12월 8일 당시 첫 방송을 최초로 기획·제작한 강재형 아나운서를 중심으로 <우리말 나들이 스무 돌> 기념 행사가 열렸다. 특별 영상제작과 행사 진행은 김나진 아나운서가 맡았다.



박재홍 신임 협회장, CBS 뉴스 부활 30주년 콘서트 진행



<12시에 만납시다>를 진행하던 김필원 협회장의 퇴사로 인해 박재홍 아나운서가 CBS협회를 이끌게 되었다. 신임 박 협회장은 전국언론노조 CBS지부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10월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재홍, 김용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CBS뉴스 부활 30주년 감사 콘서트'(사진)가 열렸다. 1980년 언론통합 때 뉴스와 보도 기능을 빼앗긴 CBS는 1987년 6월 항쟁에 힘입어 그 해 10월 19일 정상화되었다.

10월 30일부터 가을 개편, 이봉규의 <올댓재즈> 부활

CBS음악FM 가을 개편에서 새벽 3시에 CBS 전통의 재즈 프로그램이 부활했다. 대학가요제 출신 이봉규 아나운서(사진)가 <올 댓 재즈>(매일 오전 3:00~4:00)를 진행한다.

매일 정오 <12시에 만납시다>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김필원 아나운서 대신 프로그램을 진행한 가수 이수영이 맡았다





신임 아나운서협회장에 정연주 아나운서



아나운서협회장이 나선홍 아나운서에서 정연주 아나운서로 바뀌었다. 정연주 협회장은 1997년 입사, 2002년 FIFA 월드컵 상암월드컵경기장 장내 영어 아나운서로 활약했고, 2008년 아나운서클럽상, 2016년 한국어문상을 수상했다. FM <정연주의 상쾌한 아침>, <김홍국, 정연주의 행복합니다>, TV <생방송 서울의 오후>, <아이 러브 디자인>,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 이어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를 진행 중이다.

가을 개편 때 최일구·최지은 진행 <허리케인 라디오> 신설



tbs-FM(95.1MHz)이 10월 23일부터 가을 개편을 단행했다. 최지은 아나운서가 최일구 앵커와 함께 신설 프로그램인 <허리케인 라디오>(오후 2~4시)를 맡아 환상의 호흡을 선보이고 있다. 최지은 아나운서는 월~금 저녁 8시~9시 <라디오 와이파이>도 진행 중이다. 한편 <우리말 고운말>은 시간대를 옮겨 평일 오전 9시 56분에서 10시 56분으로 한 시간 늦춰 방송한다.



제주 애월읍에 제주극동방송 FM 개국



제주 FM104.7MHz, 서귀포 FM101.1MHz, AM1566kHz 주파수로 제주 애월읍에 제주극동방송(지사장 신요섭)이 개국했다. 10월 20일 FM 개국 축하 음악회, 조찬 감사 예배, FM 송출식, 신사옥 헌당식에 이어 21일부터 FM방송을 시작했다. 24시간 깨끗한 음질의 복음 방송으로 제주의 청취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북방 선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17 가을음악회 개최

제3회 가을음악회가 10월 30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김보령, 황현우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열렸다. 소프라노 정꽃님, 메조소프라노 황혜재, 테너 김동호, 바리톤 우주호, 바리톤 김주택, 팝페라 가수 이성신 등 화려한 출연진이 아름다운 하모니와 합창으로 정통 가곡, 오페라곡, 성가곡,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했다.



아나운서 출신 지승신 경영관리국장으로 승진



아나운서부장을 지낸 지승신 경영관리국 자료심의부 부장이 10월 1일자로 경영관리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았다. 지승신 국장은 1987년 CBS를 거쳐 1990년 평화방송이 개국하며 이직해 <성서 못자리>, <FM음악공간> 등을 진행했고, 1999년 아나운서클럽상을 수상했다.

제17회 창작생활성가제 열려

교회 음악 발전을 위해 1999년 시작한 '제17회 cpbc 창작생활성가제'가 김지현, 이정민 아나운서의 사회로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열렸다. 이번 문화 복음화 축제에는 인보성체수도회 수도자들 등 본선 11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재소자인 김문상 씨의 '어머니와 함께'를 찬양사도 신상욱이 부르는 특별무대도 마련되었다.

이나래, 자원봉사 사례 발표 대회 진행



자원봉사 홍보대사인 이나래 아나운서가 10월 31일 KBS아트홀에서 열린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V-Korea 중앙대회> 사회를 보았다. '2017 한국자원봉사의 해'에 열린 자원봉사 감동 사례 발표 대회였다.

우리말 다듬기 눈초 이규향의 발음 이야기 18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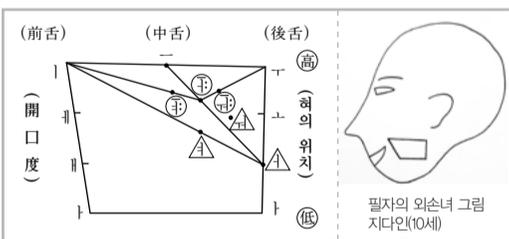
장단음은 한국어 발음의 황금률

- 장고長高모음/반半장음/동형이의어同形異意語/동음이의어同音異意語 -

표준발음법이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방송 현장에서는 장단음의 비중이 6장을 합한 것보다 높기 때문에 아나운서 세계에서는 '표준발음법' 하면 '장단음'만을 주로 떠올리고 있다.

아나운서들이 대체로 등한시하고 있는 장고모음에 관하여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발음은 성대와 혀, 그리고 입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혀의 위치에 따라 그려진 그림이 모음사각도母音四角圖이다.

발성 직전의 혀의 위치를 조음점調音點이라고 하는데, 조음점이란 사격에서 발사 직전의 손가락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왼쪽의 모음사각도에서 개구도·전설·중설·후설·고저는 입을 벌린 정도와 혀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장고모음이라는 어원은 「장음+고모음」의 준말로 모음「ㅏ/ㅓ/ㅗ」의 조음점이 높은 경우를 일컫는다.

국제음성기호(IPA;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로 표시하면 [ㅏ] [a:] / [ㅓ] [ɔ:] / [ㅗ] [wɔ:]이다. 어른[어:른], 여론[어:론], 원대[원:대] 같은 어휘로, 단순장음에 비해 어감의 품격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 즉 [어:른]의 [ㄹ:]는 [ㄹ]보다 낮고 [ㅏ]보다 높은 음이다.

장고모음에 붙인 하이픈(hyphen)은 김상준 박사와 필자의 공저인 「표준한국어발음사전」에 단순장음과 구별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다. 영어에서도 국어의 장고모음과 정확하게 일치되지는 않지만 근사치의 발음으로 earth[æɪrθ] / year[jæɪr] / word[wɔ:rd]가 있는데, 조음점이 모음사각도의 중앙에 있다 하여 중앙모음(central vowel)이라고 한다.

아나운서들이 장단음을 흔히 '자고저字高低'라고 하는데, 이는 한자의 고저성 조高低聲調를 상식으로 알고 계셨던 해방 후 대선배님들의 도제교육徒弟教育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자면 '음의 고저'라고 해야 할 것이다.

표준발음법 제3장 제6항에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장음을 인정하며 선남선녀善男善女[선:남선:녀] 같이 같은 음이 중첩되는 경우 2음절 다음에도 장음을

인정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방송 현장에서는 「첫눈에 반하다/첫눈:이 내리다」처럼 2음절 아래에서도 장음으로 발음하고 있다.

필자의 저서 「표준한국어발음사전」에서는 합성어의 경우 '한:국방·송공사'처럼 2음절 아래의 장음은 부자연스러워 점 하나의 반 장음 [·]으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장음의 특별한 예를 들어본다, 단음절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되면 짧게 발음된다. (알다[알:다]→알아[아라]/살다[살:다]→살아[사라]) 또한 피동사동형도 짧게 발음된다. (안다[안:파]→안기다[안기다]/알다[알:다]→알리다[알리다]) 예외도 있다. (작다[작:파]→작아[자:가], 웃다[우:파]→웃어[우:서])

끝으로 흔히 '혼동'과 '혼돈'이란 말을 혼동하듯이 동음이의어(한글 표기와 발음은 같으나 뜻이 다름)와 동형이의어(한글 표기는 같으나 발음과 뜻이 다름)를 혼동하고 있어, 예를 들어 설명하려 한다.

동음이의어

신사新沙역(서초구)/신사新寺역(은평구) 차車/차茶 샘(泉)/샘(질투) 선도鮮度/선도先導 동:화同化/동:화童話

동형이의어

감사感謝/감사監査監事 광주廣州/광주光州 무력武:力/무력無力 방화放:火/방화防火 부정否:定/부정不正·不定不淨不貞·父情 성인聖:人성인成人 유柳/유劉俞 정鄭/정丁 조趙/조曹 환영幻影/환영歡迎

위와 같은 발음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어死語가 될 경우 어찌 고급 한국어의 구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필자가 언어 현실에서 필요한 동형이의어를 조사한 결과 뜻밖에도 불과 300쌍(600어휘)~350쌍(700어휘)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속담에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고 하였다. 언어는 언중言衆 사이의 약속이다.

작가 마크 트웨인(Mark Twain)의 글을 음미해보면서 이번 호의 글을 마치려 한다. 「The difference between the right word and almost right word is the difference between lightning and the lightning bug. 정확한 발음과 부정확한 발음의 차이는 마치 번갯불과 반딧불의 차이만큼이나 엄청난 것이다.(의역)」



이규향

- 고려대 국문학과 졸업
- KBS 아나운서 실장
- 한국어문화 한자급 취득자
- 음성언어교육 강사
- 문교부 국어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회 | 원 | 동 | 정

물망비 보며 항일단파방송연락운동 기념식 개최



(사)한국방송인동우회(회장 한영섭, 부회장 장도형, 황우겸, 전영우, 박중세, 오승룡) 주최 2017년 항일단

파방송연락운동 기념식이 9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서현관 쪽 '물망비勿忘碑' 앞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아나운서클럽 김규홍 부회장, 황량 편집위원, KBS 조인석 부사장, 김윤로 경영지원센터장, 전인석 아나운서 등이 참석했다. '항일단파방송연락운동'은 1942년부터 약 1년간 조선 방송협회 방송인들이 중심이 되어 단파방송을 몰래 청취한 뒤 일본의 패망 소식을 국내에 전파하며 독립정신을 고취시킨 사건으로, 방송인들과 독립지사 등 350여 명이 검거돼 75명이 수감되어 6명이 옥사했다.

황우겸 고문 클럽 회원들과 함께 KBS 현역과 만남의 자리 주재



황우겸 고문이 11월 30일 KBS 아나운서실을 방문해 오찬을 베풀며 선후배간 따뜻한 만남의 자리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김규홍, 박찬숙 부회장과 이지연, 채영신 회원과 함께 성기영, 조건진, 김관동, 전인석 등 전·현직 실장과 오유경, 한상권, 원석현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현우 윤지영 회원, 서울·경기 중학교 자유학기제 직업 체험 교육



이현우 윤지영

자유학기제 수업 '진로탐색 전문가와 함께하는 직업 체험-아나운서 특강'에 이현우(전 MBC), 윤지영(전 SBS) 회원이 4차례 참여했다.

지난 9월 6일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아나운서클럽의 MOU 체결에 따라 실시된 아나운서 특강은 9월 11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연천중 이현우, 9월 26일 서울 화곡동 화원중 윤지영, 11월 9일 서울 제기동 성일중 이현우, 12월 26일 경기도 용인시 장평중 이현우 회원 순으로 진행되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 토론, 실습이나 직장 체험 활동과 같은 진로 교육을 받는 제도이다. 내년부터 일부 학교에서는 중학교 1학년 전 과정에서 자유학년제로 확대, 시행한다. (관련 후기 8면)

쏟리스트앙상블 송년음악회 사회



차인태(전 MBC) 부회장 올해도 예년처럼 스피리스트앙상블(지휘 고성진) 송년음악회 사회자로서 합창 무대에도 선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매년 참여하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음악회는 오는 12월 27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탈북여성합창단 물망초음악회 개최



박선영(전 MBC) 12월 10일 소월아트홀에서 물망초음악회(지휘 박창석)를 개최했다. 평균 연령 60세의 탈북여성합창단인 물망초합창단이 이날이 발전하는 기량을 선보였고, 남성중창단 BELL SUONO가 찬조 출연해 500여 명의 청중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송파구 유관기관 초청 음악회 사회



손범수(전 KBS) 11월 19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롯데콘서트홀에서 롯데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송파구 유관기관 초청 음악회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해설과 진행을 맡았다. 송파구의 소방관, 경찰관, 사회복지사, 간호사, 어린이집 교사 등 1,300여 명의 헌신과 수고에 보답하는 음악회였다.

큐레이션 북카페 '당인리 책 발전소' 개업



김소영(전 MBC) 11월 7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독막로8길 15)에 큐레이션 북카페 <당인리 책 발전소>를 개업한 데 이어 IOK컴퍼니 소속으로 1월 3일 첫 방송되는 SBS plus <남자다움, 그게 뭔데?>을 가수 이현우와 함께 진행한다. 한편 MBC 선후배로 만나 4월 30일 혼인한 오상진·김소영 부부는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4차례 방송된 TVn '신혼일기2'에 출연해 관심을 모았다.

<재회> 주연 맡아 영화배우로 데뷔



유정애(전 KBS) 주연 배우로 출연한 박기용 감독의 <재회>가 11월 12일 개막한 제 22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였다. 2013년 <그와 그녀의 목요일> 연극 무대에 이은 스크린 데뷔작이다.

(주)아나운서, 서종예와 MOU 체결



김현욱(전 KBS) 11월 8일 아나운서 주식회사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이하 서종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서종예 김태형 이사, EBS 아나운서이자, 서종예 방송MC쇼호스트 전공 용경빈 교수가 참석했다.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의 맡아



윤지영(전 SBS) 새해부터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로 '방송화법'을 강의한다. 가천대 성악과 졸업 후 1996년 입사한 윤 회원은 <좋은 아침>, <금요일저녁클럽>, <SBS 뉴스퍼레이드> 등을 진행했고, 2010년 프리랜서를 선언했다. 가천대 성악과 석사 취득 후 중앙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윤 회원은 현재 논문을 준비 중이다.

조선대 스포츠산업학과 특강



유수호(전 KBS) 11월 14일 오후 조선대 스포츠산업학과에서 '스포츠 아나운서의 꿈과 도전의 과정'을 주제로 강연했다. 1969년 동양방송(TBC) 입사, 2005년 KBS 정년퇴직, 2011년 KBSN 퇴사 후 네이버TV와 합작으로 아마추어 스포츠를 중계하는 인터넷 스포츠 방송 전문 기업 아이스포츠 대표를 맡고 있다.

조선일보 춘천마라톤 중계



표영준(전 KBS) 10월 29일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서 열린 조선일보 주최 춘천마라톤을 TV조선을 통해 중계했다. 표 회원은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이사장 김학인) 아나운서·MC 계열 전임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지성과 맨유 경기 관전 파티 사회



신영일(전 KBS) 10월 28일 오후 7시 서울 용산의 영화관에서 열린 'Saturday Night Soccer Party' 사회를 보았다. 이번 행사는 박지성의 팬미팅과 퀴즈 대회 등 이벤트, 맨체스터유나이티드의 경기를 관전하는 응원전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언론학회에서 공로상 수상



김성호(전 KBS) 10월 21일 한국언론학회(회장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이민규 교수) 정기 총회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이어 11월 11일에는 한국방송학회(회장 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김영찬 교수) 주최 가을철 정기 학술 세미나에서 '특별 원로 세션'을 주관했다.

작곡가 임금수의 평화음악회 사회



채영신(전 KBS) 10월 17일 저녁 서울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TGY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작곡가 임금수의 제7회 평화음악회>를 진행했다. 이날 음악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성악가들과 합창단이 출연해 청중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Zoom-in 박용찬(전 MBC) 워싱턴미주방송 대표

55년째 혼연각 열정의 방송인 미국 워싱턴을 누비다



워싱턴미주방송(KBC; Washington-Korean Broadcasting Co)을 운영하는 박용찬(전 MBC) 대표는 7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열정이 넘친다. 클럽회보 회원 동정란에 자서전 「아나운서 박용찬입니다.(2014) 발간 소식을 실어줘 고맙다며 미화 1,000달러를 전신환으로 보내주시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통화가 이어졌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상암동 스텐포드호텔에서 열리는 '2017 해외한국어방송인대회'에 참석차 방한할 때 클럽 회원들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다. 11월 14일 편집위원 중심으로 여의도에서 함께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검게 그을린 얼굴, 다부진 체구의 선배님과 첫 대면했다.

글 / 편집장 황인우



발전 기금 기탁

그 동안 미국에서 무료로 회보를 받아보며 참 고맙았다. 늘 아나운서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자긍심을 높여주더라. 그래서 아나운서클럽에 보답하고 싶어 성의와 자부심으로 발전 기금을 보냈다. 주변의 방송인들에게도 아나운서클럽에 회원 가입하라고 늘 홍보하고 다닌다.

2017해외방송인대회

미국, 중국, 호주 등 7개국 36개 한국어 방송사 관계자 60여 명이 모여 우수 프로그램 시상도 하고 세미나와 연수교육 등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23번째인데 그동안 TV 중심이라 참여 안 하다가 올해 처음 참석했다.

워싱턴미주방송

1980년 6월 2일 볼티모어한인회가 설립한 메릴랜드 방송국에서 비롯되었다. 워싱턴주 버지니아 애난데일 인근 20여 만 교포들을 위해 AM730Khz로 매일 24시간 방송한다. 인터넷방송(kbc-news.com)도 하고, 2012년 11월 12일부터 스마트폰 방송(KBC USA 앱)도 하며, 올 7월 6일부터 유튜브에도 올린다. 청취료, 광고료, 기부금으로 운영하며, 순수하게 교포 사회의 힘으로 발족된 만큼 교포 사회의 단합과 일치에 위해 통일시대를 추구하고 방송하고 있다.

방송 역경

주위에서 “아나운서 해바라.”라는 말을 들었던 터라 아나운서가 꿈이었지만, 취직이 쉽지 않을 때라 서울 문리사범대 졸업 후 수원에서 교사 생활을 했다. 그런데 성격이 모나서 한 교직원에게 따지고 나섰다가 도리상 사직서를 냈는데 바로 수리하더라. 3분 만에 3년간 해왔던 직업을 잃다니 절망감으로 마치 땅이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치기氣氣에 ‘내가 한 마디 하면 전국으로 나가는 아나운서 돼야지’ 맘먹고 KBS 아나운서 시험을 두 번 봤다가 떨어졌다. 당돌하게도 아나운서실로 쳐들어가 당시 임택근 실장에게 낙방 이유를 물었다. 서류를 검토하시더니 “다 좋은데, 학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다 방면의 지식이 필요한 일이니 동점자일 경우 누굴 뽑겠느냐?”라고 반문하셨다.

그래서 건국대로 편입, 학사고시를 치르고 행정학과 졸업장을 딴 후 1962년 기독교방송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그러다 결원을 메우기 위해 부산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다. 1959년 부산MBC 개국 이후 부산CBS에서 그쪽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신입 요원 뽑을 때까지 3개월만 있다 오라고 했는데, 2달 만에 “광주서 방송 잘하는 사람이 오니 쉬라”는 말 한마디로 해고당했다. 충격을 받아 영도다리로 갔는데 뛰어내릴 용기가 없었다. 1964년 일이다.

다행히 곧바로 제4기 부산MBC 아나운서로 합격해 3년간 일하다 PD로 전직했다. <푸른 신호등>을 연출하며 순찰 중인 교통경찰을 연결해 전역을 커버하는 획기적인 시도라든지, 영도 무선국과 오대양을 누비는 어선을 연결해 육지의 가족과 통화하게 한 <갈매기 통신>, 중계차도 띄우고 군함에서 방송하고 경비행기 타고 직접 방송하며, PD도 마이크 잡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든 개국 특집 방송 등 기획력을 인정받았다. 상업 방송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방송을 만들고 입체적으로 방송하는 게 가능했다. 1969년엔 목포MBC 개국요원으로 차출되어 섬마을 순회 공개방송을 하고 배위에서 선상 공개방송을 펼치기도 했다. 1970년 개국한 부산 문화방송 TV 기사를 하다 1971년 서울로 올라와 라디오 편성부 MD를 거쳐 PD와 스포츠 기자로 근무했다. 그러던 1973년 지학순 주교가 투쟁하던 그 시절, 원주 MBC 방송부장으로 발령받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상사에게 밋보여 또 느닷없이 해고당했다. 천직이라 생각했던 방송을 빼앗긴 박탈감이 얼마나 큰지 살의를 느낄 정도였다.

그 후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평생의 은인 정종진 박사의 권고로 형님 초청을 받아 1978년 미국으로 이민 갔다. 아내는 병원 청소를 하고 나는 세탁소, 배터리 공장,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막노동 하며 치열하게 살던 1980년, 워싱턴 근처 볼티모어 한인회가 만든 메릴랜드 방송국에서 내게 방송 요청을 해왔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방송국으로 달려가 밤새워 방송을 제작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그러다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어 3개월치 밀린 급여로 경영권을 인수했고, 워싱턴으로 이전해 워싱턴미주방송을 시작했다. 유순길(전 MBC), 김정현(전 KBS) 아나운서 등 전문 방송인과 함께 일을 하며 방송을 내보내자 ‘서울과 똑같네!’란 반응이 돌아왔다. 아무리 작은 방송이라도 훈련받은 전문 방송인이 해야 신뢰를 얻는다.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등 고국 소식을 실시간으로 그대로 전달하자 청취율이 치솟았다. 그 후 총영사관의 문제점 등을 비판하며 교포들의 불편사항과 고충을 해결하고 미국의 정치 수도 워싱턴을 방문하는 고국의 유명 인사들을 빠짐없이 인터뷰하니 동포들의 후원금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국어방송 뿌리 내리기

주류 방송사에서 철저히 훈련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나운서, 프로듀서, 기자, 엔지니어까지 다 하며 발로 뛰었다. ‘본 대로, 들은 대로’란 사시社는 아래 사실을 사실대로 전했다. 늘 청취자 편에 서서 비판하니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었다. ‘대한항공이 정비도 제대로 안 하고 뉴욕 출항한다’란 방송을 낸 후 업무방해죄로 고소도 당했다. 그 수습 과정에서 20년간 광고 계약을 따게 되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1983년에는 침대까지 있는 폭스바겐 밴을 사 ‘워싱턴 미주방송’ 로고를 붙이고 워싱턴을 누볐다. 방송국의 존재를 각

인식시키고 공신력을 얻기 위해, 행사가 열리면 제일 먼저 달려가 문 앞에 세워 놓고 맨 뒤에 끌고 나왔다. 새벽 5시 출근, 저녁 8시 퇴근이 55년째 현업에서 뛰며 건강을 유지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잊을 수 없는 일

화상을 입은 대구의 배직순 어린이가 미주한인청년회의소 주선으로 무료로 치료받으러 와야 하는데, 비행기표 살 돈이 없어 대한항공 조중건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 수술을 받고 새 얼굴로 돌아갔다. 1987년 모국에서 대홍수가 났을 때는 인구 10만 명도 안 되는 워싱턴에서 금세 5만 달러를 모아 MBC에 수재의연금으로 보내고 물에 잠긴 극동방송 송신소 복구 비용도 보냈다. 1990년 정초 뉴욕의 청과상 장봉제 씨가 흑인들의 불매운동으로 고통당할 때 소송비용 3,000달러를 모금해 전하는 등 뿌듯한 일이 너무나 많다. 1996년부터 8만 달러를 목표로 코리안 커뮤니티센터 건립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까지 450명으로부터 72,000여 달러를 모았다. 그와 같은 일이 쌓이면서 교포들에게 ‘우리 방송’이란 인식을 갖게 한 것 같고, 1달러를 받아도 정확히 공지하고 처리하니 신뢰를 얻게 된 것 같다.

또 1991년 9월엔 미주언론인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북한방송위원회 초청을 받아 20일간 평양에 가 진남포, 백두산, 원산, 금강산 등을 직접 촬영해 CD로 제작하기도 했다.

성공 비결

전화 통화다. 사건 주인공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방송 중 ‘이 문제는 청와대에 직접 물어보자’ 하고 연결하면 교환원이 나오고 하는 것까지 그대로 들려주는 방식이다. 현장감이 신뢰로 이어진다. 3인칭 화법은 감동이 없다. 실감나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유롭고 편한 미국에서 옳지 못한 것을 보면서 눈치 볼 이유가 없다. 그리고 너무 딱딱하지 않게 진행하고, 직설적으로 질문한다. 그 동안 고달픈 이민 생활을 위로해주는 동반자로서 교포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내왔다. 교포사회는 시골마을 같아서 거짓말이나 하고 인심 잃으면 매장당한다. 방송은 만남이고 삶의 방식이며 나눔이고 미래다. 가족이다.

아나운서는 나의 정체성

사람들은 신문사엔 기자, 방송국에는 아나운서만 있는 줄 안다. 방송의 얼굴 아나운서 출신인 게 나의 자부심의 원천이다. 아나운서 선후배들의 바른 생활, 품위 있는 언행을 떠올리면, 우리 아나운서들이 이 험한 사회에서 훌륭한 인품을 지니고 바르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나운서란 직업 때문인 것 같다. 누구든 워싱턴에 오실 때 연락주시면 달라스공항에 나가 픽업해드리겠다. 아나운서클럽의 발전을 기원한다.



미주방송인협회 40주년 기념 '방송인의 밤' 개최

40주년 기념호인 「미주방송」 제12호로 재창간 배부

미주 방송인들의 큰 잔치가 연말을 풍성하게 했다. (사)미주방송인협회 창립40주년 기념식이 12월 1일 오후(현지 시각) LA 한인 타운 중심가 용수산회관에서 전·현직 방송인과 한인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렸다.

제25대 홍우창 회장은 앞으로 미주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본국의 아나운서협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념 행사는 정영호 전 회장의 협회 약사 소개, 김봉구 초대 회장이 축하 휘호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의 임중도원任重道遠 증정, 시인인 박복수 전 회장의 축시 '한민족의 향기, 언어의 꽃이 되어' 낭송, 제3회 우수방송인상 시상 순으로 진행되어 TV 방송부문에 KBS AMERICA 윤범수, 라디오 부문에 라디오 서울의 이영돈 아나운서가 상을 받았다.

미주방송인협회는 미국 내 한인 방송인들의 유대 강화, 바르고 고운 우리말 보전 및 한국어방송 문화 창달을 위해 고故 김영우 전 회장이 중심이 되어 김봉구(전 HLKZ) 회원을 초대 회장으로 모시고 방송인 16명이 뜻을 모아 1977년 1월 16일 창립했다. 이민 사회의 척박한 환경에서 한국어 방송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은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선 어디서나 한국어 방송을 들을 수 있다.

미주방송인협회는 그동안 올바른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바른말 고운 말'을 연속 방송하며 교포 2세와 현지 한국어 방송인을 위해 우리말 바르게 쓰기 세미나, 어린

이 동요대회 등을 추진해 왔고 얼마 전부터는 매년 한국어 우수방송인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한편 미주방송인협회는 12월 1일자로 지난 7년간 중단되었던 「미주방송」을 재창간했다. 미주방송인협회 창립

40주년 기념호인 제12호에는 임국희 회장의 축사 '우리말과 글로 한국인의 얼 가꾸며 동포 사회 결속에 기여하기를', 김성호(전 KBS) 회원의 특별기고 '한국방송 90주년을 보내는 소회, 황인우 편집장의 편지글 '우리의 거리감을 없애주는 마법의 끈'을 비롯해 춘하추동방송 이장춘 대표의 '미국의 우리말 방송은 한국방송의 연장'이란 글이 실렸다.



왼쪽부터 뒷줄 심재인(TBC 영상제작, 전 회장 이병훈(전 KBS)·이은숙(방송인) 부부, 문원철(TBC 기술, 전 회장 정영호(전 KBS), 이근찬(Radio Korea 진행자), 이영호(전 TBC, KBS PD), 신윤호(RADIO 1230 진행자), 최동호(MBC 진행자), 송봉후(RADIO KOREA 앵커 겸 총괄 부사장), 나영욱(MBC, KBS 진행자) 부회장, 김봉현(한인상공회의소 부회장), 전 회장 김정수(MBC 기술, 미주MBC사우회 회장)

가운데 김영준(RADIO KOREA 사장), 홍우창 회장 부인, 김봉현 부회장 부인
앞줄 이종만(KBS 밸런트), Mr.맹경원, 맹경원(전 DBS), 김봉구(전 HLKZ) 명예회장, 홍우창(전 TBC) 회장, 전 회장 박복수(KBS 성우) 고문·박영곤(영문학 박사) 부부, 김춘식(LA북부한인회장)

글 / 이현우 李賢雨 (전 MBC)
1977.3~2008.9 근무 후 정년퇴직
현 문화아나운서스피치 대표강사
유원대학교 사회복지 실습 전공교수(사회복지학 박사)
(사)MBC사우회 아나운서 부문 이사
(사)아나운서클럽 편집위원



중학교 시절로 돌아간 듯 즐거웠던 시간

자유학기제 수업 '직업의 세계 아나운서 특강' 보고서

지난 여름 아나운서클럽과 시청자미디어재단 MOU 체결에 따른 과업의 시작으로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주관하는 자유학기제 '직업의 세계 아나운서 특강' 첫 번째 강사로 차출(?)되어 지난 9월 11일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연천중학교에서 강의를 하였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자동차로 2시간여 걸리는 현장을 가는 동안 강의 자료를 살펴며 생각에 잠겼다. 무엇보다 강의 대상이 대학생들도 아니고 아직 13 ~ 14살의 어린 중학생들에게 할아버지뻘(?) 되는 나이에 '아나운서의 모든 것'에 대해 강의를 한다는 게 뭔가 부담스럽고 서먹한 기분이었다. 대개 이런 강의는 아름답고 세련된 모습의 젊은 여자 아나운서들이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운서클럽에서 연락이 왔을 때 선뜻 대답한 것은 지난 2016년부터 인천, 경기 지역 스피치 아카데미 등에서 자유학기제 강사 양성 교육과 실제 중학교 현장 강의를 드물게나마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역 때도 MBC아카데미 교수 요원 파견 등으로 아나운서 과정 교육을 20년 넘게 담당했고, 현재도 개인지도 형식의 아나운서, 리포터, 기상캐스터 지망생들을 알음알음 연결해 지도하고 있으며, 때로는 현업을 하고 있는 아나운서나 기자가 모니터 받고 싶다고 해 계속 가르쳐왔기 때문에 아나운서·스피치 강의에 대한 끈은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도착한 연천중학교는 오랜 역사를 지닌 대표적인 지역 청소년 교육의 요람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담당 교사의 안내를 받아 도서실로 사용하는 교실에서 5, 6교시 아나운서 특강을 시작했다.

30여 명의 학생들이 사각형으로 배치된 책상에 둘러앉아있는데 예상대로 처음부터 산만하고 자유분방한 분위기였다. PPT 자료를 대형 화면에 세팅하고 내 소개를 하기 전에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학생?" 하며 손을 들어보라고 한 후 제일 먼저 손을 든 학생을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미리 준비한 선물을 주며 시선을 집중시키고 분위기를 잡아 나갔다.

자유학기제 특강 강사는 준비한 내용보다 먼저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강의 중간 중간 최대한 순발력을 발휘해 아이들을 집중하게 하

고, 소위 즐겁게 해주며 눈높이가 맞는 친구가 되어야 강의를 무난히 이끌어 갈 수가 있다.

그 후 두 번째 특강을 가게 된 성일중학교는 분위기도 다르고 강의하기도 훨씬 수월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안내해주시고 부장 선생님, 담임선생님까지 모두 TV에서 본 기억이 난다며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다. 그래서인지 학생들도 강의에 잘 따라주고 실습을 시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과가 좋고 힘도 안 들었다.



아나운서 특강을 통해 어느새 가까워진 미래의 아나운서 지망생들과 한 컷

준비해간 특강 내용은 '아나운서란? 직업의 세계, 그리고 아나운서가 되려면 어떻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나? 또 표준어 학습, 지식, 품행, 특기, 건강한 체력' 등에 이르기까지, 간단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뉴스 문장, 스포츠 중계 멘트, MC, 리포터 멘트 등을 실습케 하며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학생들에게 임힐 문장은 미리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훈, 학교 뉴스, 특활 활동, 가정 통신문, 이번 주 급식 종류 등의 내용을 주제로 하여 교장 선생님, 담임선생님들의 이름을 넣어 뉴스나 리포팅 문장으로 만들어 가서 학생들에게 아나운서 실습을 시켜보니 더 실감하며 재미있게 따라오는 효과가 있었다. 물론 리포팅 끝에는 학생 본인 이름을 넣어 "지금까지 000 아나운서였습니다."라고 해보라고 했더니 더 좋아했다.

특강을 진행하는 동안은 내 나이도 잊고 완전히 중학생들과 동화되어 아나운서 자랑을 하며 마음껏 재능기부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열정과 애착만 있으면 세대를 넘어 아이들과도 격의 없이 어울릴 수 있고 보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번 자유학기제 아나운서 특강을 진행하며 느낀 점의 또 하나는 우리 아나운서클럽에서도 개척하고 활동

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는 것이다. 생각에 따라서는 품위 있고 고상한 친목단체의 범주를 넘어 사단법인의 성격상 목적 사업, 수익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능한 능력들을 발휘하는 보람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언어교육과 관련해 인터넷방송 등에서 한두 번 접해본 경력만 있어도 '말하기, 스피치, 화법, 면접,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프리젠테이션 기법, 대화의 기술' 등 갖가지 명칭으로 전문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웅변학원도 '스피치 아카데미'라고 상호를 바꿔 어린 학생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스피치 교육을 나서는 실정이다. 그야말로 너도나도 말하기 교육의 전문가라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또 개중에는 발음, 억양도 제대로 안되면서 한류 바람을 타고 늘어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외국어로써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어 교원들도 더러 있는 현실이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통성을 가진 우리 아나운서클럽에서 책임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아나운서 교육 분야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한다. 현대 정보화 사회는 '침묵이 금인 시대가 아닌 스피치가 다이아몬드인 시대'라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우리 아나운서클럽도 새로운 도약을 이루었으면 하는 생각을 곁들이며 자유학기제 '직업의 세계 아나운서 특강' 소고소고를 줄인다.

고맙습니다	12월 10일까지		 김성경(전 SBS) 20만 원
축하합니다	김덕기(CBS) · 김지혜(tbs) 12월 30일 혼인 이지민(CBS) 11월 27일 득남 정도영(전 KBS) 11월 14일 아들 유식 군 혼사 조건진(KBS) 10월 22일 딸 민경 양 혼사 백선일(KBS청주) 10월 21일 혼인 송정훈(CBS) 10월 8일 득남 이태현(대전CBS) 9월 23일 장남 인영 군 혼사 조우중(전 KBS), 정다은(KBS) 9월 13일 득녀		
조의를 표합니다	박선영(전 MBC) 12월 3일 모친상 이현정(전 BBS) 12월 1일 부친상 한국현(KBS울산) 11월 9일 부인상 유은하(전 CBS) 11월 2일 본인상		

KEB하나은행 358-910003-70805
(사) 한국아나운서클럽 연회비 10만 원